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5.25.(수) 07:30 이후	배포	2016.5.24(화)
책임자	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상범(02-2100-2620)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장 이동렬(02-3705-5866)	담당자	최상아 사무관 (02-2100-2621) 이재근 팀장 (02-3705-5867)	

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 간담회 개최

1.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
 - 이에 따라, 신용정보원은 보유 중인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금융업계 및 핀테크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음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각 금융업계 임원, 학계, 법조계,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업무계획을 논의하고, 의견을 청취하였음

< 「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」 조찬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2016.5.25.(수) 07:30 ~ 08:30 / 은행연합회 중회의실
- 참석자
 - 금융위/금감원 : 금융위원장, 중소금융국장, 신용정보팀장 / IT검사실장
 - 신용정보원/학계 및 업계 등 :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/ 학계(KAIST 변석준 교수, 서울대 김용대 교수), 연구원(금융연 이순호 박사), 법조계(김앤장 정성구 변호사), 6개 업권 빅데이터 담당 임원(KB지주, 우리은행, 삼성화재, 신한카드, 카카오뱅크, KCB) 등

2. 신용정보원 「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」 주요내용

☞ 상세내용 < 별첨 : 신용정보원 보도자료 > 참조

3. 주요 논의내용

-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초 설립된 신용정보원의 출범 의미는 신용정보보호 강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있다고 강조
 - ① 신용정보 집중 기능이 각 협회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신용정보보호가 가능해 졌으며,
 - ② 신용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 아래 각 업권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융합·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였음
- 또한, 앞으로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당부
 - ① 신용정보원은 전 업권 신용정보를 집중·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만큼, 업권간 정보를 연계한 여러 유형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·제시할 필요
 - ②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용조회에만 이용되었던 기존의 신용정보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의 신사업 개척,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
 - ③ 빅데이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기술적 처리, 지속적 사후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
-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'원유(原油)'라고 불리는 만큼, 빅데이터의 적극적 분석과 활용은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,
 -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음

- 참석자들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**국내 금융업계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** 되기 위해서는 **신용정보원이 선도적인 역할**을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
- 향후 금융권의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**신용정보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**해 줄 것을 요청
- 특히, 빅데이터 분석 초기단계에서는 **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통계·분석 자료**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,
 - 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**1:1 맞춤형 통계·분석**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**업무영역을 확대**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음

	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</p>	 <p>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</p>
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			